

이순신의 위대한 교훈

왜 이순신은 그토록 지극히 숭앙 받는가?

그의 혁혁한 군사적 공훈과 나라를 위한 건줄 데 없는 공헌 이외에도 그의 모범적인 품성과 삶의 모습이 그를 진정한 의미의 영웅이 되게 한다.

그의 일생을 통하여 그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그때마다 사려 깊게 최선의 행동을 추구하며 끈임 없이 자기 수련에 정진 하였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옳은 행동을 하겠다는 확고한 마음가짐과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올바른 사람이 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이순신은 다음과 같은 바람직한 행적으로 모범적인 일생을 살았다.

1.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충무공의 기본정신은 자신과 자기의 소원에 앞서 남과 남의 행복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데 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불변의 기초가 되고 있는 이 마음가짐은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타인에 대한 봉사과 공의로움을 뜻한다. 그래서 충무공 정신은 나라와 부모를 지극히 귀하게 여기며 남을 공평하고 바르게 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충무공 정신에 따라 이순신 장군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했다.

말 그대로 그는 나라를 지키는 전투 중에 전사 함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외국의 침략군에 맞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데 그의 일생의 대부분을 바침으로서 자기희생을 실현하였다. 또한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부모에게 극진한 효성을 베풀어 충무공 정신을 본 보였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은 그가 쓴 난중일기에 약 108번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100번 이상 자기의 어머니를 옛 중국고사에 어머니를 하늘로 비유한 ‘천지’ 라는 말로 지칭하였다. 이것이 곧 이순신이 부모를 대하는 수준인 것이다.

나아가 이순신 장군은 참다운 이순신 정신으로 가족과 부하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며 깊이 사랑했고, 귀하고 공평하게 대했다.

수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조선의 일반 병사와 평민들을 짐승보다 조금 낮게 취급하던 봉건군주주의의 최성기에 이순신은 개개인의 목숨을 지극히 귀하게 여기며 개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에 마음을 썼다.

이와 같이 하여 일본 첩자의 거짓 정보에 속아넘어간 선조임금이 이순신 장군에게 군사를 모두 이끌고 부산으로 나아가 이름 높은 일본장수를 잡아오라고 명령 했지만 그렇게 하면 상당수의 병사만 죽게 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불복하고 따르지 않았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 당하고, 사형 당해 죽을 위험과 백의종군에 처해지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순신 장군은 한사코 부하들을 죽을 곳으로 보내기를 거부했다.

그 뒤에 일어난 일본군의 매복공격과 이순신 대신 선조임금이 내보낸 조선의 장수(원균)와 병졸들이 전멸한 사실은, 나아가 이순신의 상황판단이 옳았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혁명, 남북전쟁, 민권운동 보다 여러 세기 앞서서 각 개인의 생명과 각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엄성과 인권을 귀하게 여기는 이순신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이상을 앞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드높은 정의감, 책임감 그리고 불굴의 용기

이순신 장군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강력한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 그는 지위나 이익, 나아가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항상 옳은 일을 추구하였다.

‘간추린 이순신 공부’에서 보았듯이 당연히 승진될 사람을 제외시켜 놓고 자기 직접 상관의 친구를 승진 시키기를 거부하여 부당하게 해임 당했을 때 처럼 자기에게 그릇되고 옳지 못한 일을 시킨다고 생각될 때에는 이순신은 직접상관에게도 단호하게 맞섰던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몹시 불리하게 되고, 강등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모략을 당하거나 그 이상 나쁘게 되어도 항상 옳은 일에 앞장 섰다.

이순신 장군의 용기는 한마디로 강하고 물러설 줄 모르는 것이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흔히 엄청난 난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인한 성격과 용기가 흔히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남다른 용기를 지니고 이순신 장군은 몇 번이고 일본에 대항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순신과 그의 군사들은 흔히 수적으로 2배, 3배, 심지어는 10배나 많은 적과 싸웠던 것이다. 그와 같이 압도적인 불리함을 이기고 이순신과 그의 군사들은 싸울 때마다 일본군에게 이겼던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압도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지극히 사랑하는 자기 나라가 지위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엄청난 불리함을 무릅쓰며 매번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움을 피해 달아나는 일이 없었다.

3. 큰 일과 작은 일을 분별하는 지혜

수 많은 목표와 할일 가운데는 더 급한 일과 덜 급한 일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이 목표와 관심사에 어떻게 우선 순위를 매기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알게 된다. 나아가, 가장 긴급하게 처리할 일과 덜 긴급한 일을 분별해 내는 능력은 흔히 성공과 실패를 가름 하기도 한다.

흔히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분별능력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며 한 개 이상의 급한 일이 밀렸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이순신 장군은 다행스럽게도 시급하게 서둘러 해야 될 일과 시간을 끌어도 될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지니고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을 떠나 실수 없이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급한 목표를 우선 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항상 어느 때든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 좋은 예가, 그가 좌수사가 되자마자 다른 모든 관원들은 그와 같은 재난이 곧 닥칠 것으로 믿지 않았는데도 이순신은 서둘러 일본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충분한 전쟁준비는 나라의 평안과 굴종을 가름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전쟁준비를 서둘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중요성과 긴박성에 따라 이순신 장군은 전쟁준비를 최우선으로 하여 그의 노력과 주의를 여기에 집중 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순신 장군은 자기 병사들을 벌 주는 것을 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엄하고 신속하고 예외 없이 처벌했던 것이다.

한결 같은 규율, 군법,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의 수군은 무질서 속에 스스로 무너질 것임으로 이것을 극히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이다.

나아가, 이순신 장군은 자기의 개인사정으로 우선 순위를 바꾸는 일은 없었다. 예를 들어 그의 난중일기에서 스스로 개탄 했듯이 ‘나라 일이 위급하므로’ 자기 부인이 죽어가는데도 가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또한 여수 근처 어머니가 사는 곳으로부터 하루 뱃길 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한산수군 통제영에 머물던 삼년동안 어머니를 지극히 그리워 하면서도 나라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므로 잠시도 틈을 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4.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참된 겸손

32살에 과거시험에 합격하고 나라에 봉직하던 22년 동안 이순신은 세 번이

나 부당하게 파직 또는 강등을 당했다. 그 당시 가장 무거운 군대처별인 백의 종군을 당하는 수모를 두 번이나 겪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임금에게 죽임을 당할 뻔 했는데 임금은 이순신의 가장 증오스럽고 악독한 경쟁자이며, 동료 사령관인 원균이 퍼뜨린 악독한 비방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에게 내려진 이처럼 수많은 극심한 불공정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일체 불평하는 일이 없었다. 실제로 자기의 강등에 대해 원망하기는커녕 승급된 데 대해 오히려 겸손을 나타냈다.

일본군에 대한 빛나는 승리로 품계가 오를 때마다 그는 거북해 했고, 그때마다 “공은 없는데 이름만 난다” 고 말하는 것이었다.

또, ‘임금을 피난가게 하고 굴욕과 수모를 당하게 하고, 백성이 전쟁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에 마음 아파하며 분하게 생각하고 죄스러워 하는 데에서 그의 참다운 겸손이 더욱 돋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이순신은 자기가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책임은 온전히 지면서도 자기가 잘한 데 대한 영예나 보상은 받으려 하지 않았다.

5.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참을성

훌륭한 일본 해군제독 도고가 말했듯이 이순신이 견뎌야 했던 처지에서 전쟁을 한 지휘관은 세상에는 없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어려움을 이기고 이룩한 이순신의 업적을 외국의 해군제독들이 인정하는 것은 곧 이순신이 영웅중의 영웅이며, 위인중의 위인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은 병사를 먹일 군량을 모으고, 무기를 수리하거나 만들어내야 했으며, 쳐들어 오는 일본군을 피하여 집을 떠나 도망쳐 온 피난민들까지 돌보아야 했다.

옛날 소총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롭고 치명적인 조총이 무서워 싸움을 포기하고 목숨을 구해 도망친 두 조선 수군 장수의 군대를 일본군은 쉽사리 무너뜨렸다. 조선의 임금은 오늘날의 서울인 한성을 버리고 압록강가에 있는 의주로 피난 가는 바람에 거침없이 쳐들어 오는 일본군에 맞서 조선을 지키려는 이순신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나라는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이순신은 홀로 남았다. 그리고 이순신은 정부가 도망친 혼란 속에서도 쳐들어 오는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빛나는 군사적 승리를 준비하며 군사들을 끌어 모으고 있었다. 이순신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기는커녕 그들은 당파싸움과 책동을 일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이순신 장군은 나라의 장래가 걸린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생긴 아마

도 위궤양일지 모르는 극심한 속병을 앓으면서도 빛나는 승리를 마련해 나가고 있었다.

6. 새로운 해결책을 이끌어 내는 창의력

이순신 장군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낡은 사고방식이나 생각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열린 마음으로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새롭고 보다 나은 해결책을 생각해 내곤 하였다. 그 좋은 예가 세계에서 첫 번째로 유일한 철갑 거북선을 창안해 낸 일이다. 거북선은 조선 수군이 적진 속으로 뚫고 들어가 적진 중앙으로부터 안전하게 적군과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본 군을 홀트려 뜨림으로서 조선 수군이 보다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이순신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수적으로 훨씬 많은 적을 맞이 해서도 이와 같은 무기와 작전을 써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군대를 먹일 식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대가 농사 짓는 둔전제와 해로 통행증 제도를 만들었다. 이순신 장군의 둔전제에서는 그 당시 군대들은 보통 농사를 짓지 않았었지만 식량 조달을 위해 이순신의 보호를 받기 위해 피난온 피난민들과 함께 정부 땅에 농사를 짓게 했다. 이렇게 하여 이순신은 그의 보호 아래 군대와 피난민을 먹일 일상적인 식량을 마련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순신은 그의 보호 아래 군대와 피난민을 먹일 일상적인 식량을 마련했던 것이다.

간단하고 손쉬운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들이 자기들이 먹을 식량을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땅에 농사지어 마련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제도로써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통상의 틀에서 벗어나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이순신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해로 통행증 제도도 군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마련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처음으로, 해로 통행증 제도는 이순신 장군 관할지역을 다니는 배들은 등록을 하고 허가증을 받도록 했다. 허가증을 받으려면 등록하는 배마다 매년 등록비를 내야했다. 보통 등록비는 식량으로 내었는데 예를 들자면 큰 배는 쌀 석 섬, 중간 배는 두 섬, 작은 배는 한 섬이었다.

전에는 내지 않던 그런 비용을 내는데 대해 백성들이 불평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조선의 백성들은 이순신이 관할하고 지켜주는 해역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관할하는 수역을 자유롭게 다니기 위하여 기꺼이 요금을 냈다.

더욱이 이 해로 통행증제도는 이전까지는 검열을 받지 않고 멋대로 드나들던 배들을 규제 함으로서 적의 첩보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임진전쟁 기간이 길어지자 무과 과거시험이 이순신 부대가 있는 곳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억울하게도 이순신의 부하들은 응시할 수가 없었다.

과거시험을 치르지 않고서는 열심히 근무한 병사들이 승진하여 장교가 될 수 없음을 잘 아는 이순신은 부하들이 시험을 치르고 승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시과거시험장을 바로 한산 통제영 진중에 열도록 조선 정부에 특별 요청하는 비상한 방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얼마나 생각 깊은 상관인가.

7. 남다른 기록정신과 부지런함

이순신 장군은 몹시 부지런한 사람이자 관리였다. 그 당시에는 사령관이라 하더라도 군대를 훈련 시키고 통솔하는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고 임금에게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손으로 써야 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허가를 신청할 때나 새로운 것을 새로 시작해보려고 신청할 때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숨 돌릴새 없는 임진전란 중에도 어김없이 이순신 장군은 그 날의 사건 요지나 생각이나 느낌을 담은 전쟁일기를 써 나갔다. 이 일기를 ‘난중 일기’ 라고 한다.

이순신 장군의 마음 씀과 정신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이 지냈던 여러 가지 기록 중에는 이순신의 마음과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 깊고 특징 있는 여러 편의 시문을 그가 지었음을 볼 수 있다. 그 당시의 지식인들처럼 그는 그의 깊은 감상을 다음과 같은 시문으로 나타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어루만지며
깊은 시름 잠겼을 때
어디서 한가락 피리소리
그 시름을 더하는가

다음은 난중일기로부터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이다.

죽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요

**피하려 하면
죽고 말 것이다.**

이순신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면 이순신의 정신과 행함은 군대뿐만 아니라 가족, 학생, 직장인에게도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가치기준과 사고방식을 응용하는 것은 정부기구는 물론 가정과 사업체에도 매우 귀중한 일이 될 것이다. 실제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그의 교훈은 그가 장렬하게 전사한지 수세기가 흐른 오늘날에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연구하며 그의 본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읽기 도우미>

Admiral Yi Sun-shin - 이 직함은 ‘이순신 제독’ 이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이순신이 살았던 조선의 군사제도에서는 육군과 해군의 구별이 없었고 실제로 이순신도 전라좌수사로 임명되기 이전에 24년간 육군 장교로 근무했으며, 당시의 문헌들이 ‘장군’ 으로 지칭한 역사성에 충실하기 위하여 ‘장군’ 으로 번역합니다.